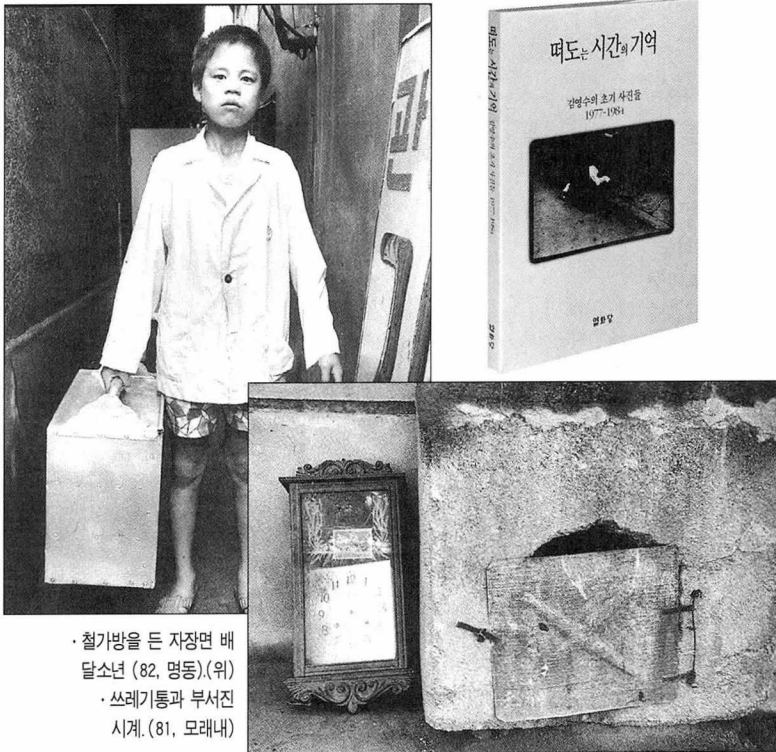


치밀한 계산과 통제력의 산물

김영수 《떠도는 시간의 기억》



· 철가방을 든 자장면 배달소년 (82, 명동)(위)
· 쓰레기통과 부서진 시계. (81, 모래내)

본격적인 '사진쟁이'에게 피사체의 어느 한 측면만 과시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금물이다. 표면을 떠도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제작과정을 거치면서 피사체의 내재된 본질을 들춰내는 것이 작가가 해야 할 일이다. 사물의 물성과 인간의 인성의 조화를 담은 김영수(51)의 《떠도는 시간의 기억》(97, 열화당)은 피사체의 내재된 가치를 표출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잘 나타난다.

사진집은 대체로 세가지 관점에서 전개된다. 먼저 굽힘 없이 사는 인간과 세파에 찌

든 인간의 빛과 그림자에 초점을 맞춘다. 철가방을 든 자장면 배달 소년으로부터 시작하여, 반가운 소식을 전달하는 우체부아저씨,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는 도어맨,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하는 드럼 연주가 등의 모습은 삶의 활기를 전해준다. 그러나 기차길 옆 텅빈 우동가게 주방장, 냄비를 뒤집어쓰고 잠자는 낭마쟁이, 전봇대 옆에 널브러진 누군가의 모습은 삶의 짙은 그림자를 상기시킨다. 도시빈민의 다양한 삶의 유형을 추적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는 인간의 생태를 반추하는 것이다.

둘째는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추적이다. 눈깔이 빠진 채 썩어가는 닭, 폐유가 가득 담긴 주전자, 퇴색한 냉장고의 음울한 모습은 엄연히 존재하는 도시빈민의 힘든 현실을 대변한다. 누가 구멍 뚫린 지붕 아래 버려진 의자에서 쉴 수 있겠는가. 누가 망가진 차를 타고 현실세계로부터 탈출할 수 있겠는가. 쓰레기통 옆에 초침 없이 서 있는 부서진 시계가 암울한 현실을 영원히 잡아둘 것만 같다.

더욱 도시빈민의 힘든 여건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것은 셋째 장면이다. 사람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는 도시의 풍경. 적막하다 못해 살풍경하다. 산동네부터 난지도, 강변, 공단, 시장, 시가지로 이어지는 풍경은 과연 그런 곳에서 사람이 살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까지 갖게 한다. 즉 사람과 사물을 극단적으로 분리하여, 도시빈민의 삶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셈이다.

'1977년에서 1984년까지' 도시 풍경을 치밀한 계산과 통제력으로 담아낸 책은 10여년 전 도시빈민의 암울한 실상을 떠도는 기억으로 잡아두고 있다. 결코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사진의 예술적 가치를 한껏 높여온 작가는 사진집으로 《현존》(82, 시각), 《사람들》(86, 열화당), 《한국의 나무탈》(93, 열화당) 등을 펴냈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출강하고 있으며, 개인작업 또한 활발히 펼치고 있다.

— 오완진 기자

출판저널

통권 제245호 / 1998년 10월20일 발행

발행인 — 김낙준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종환
편집장 — 김지원
기자 — 오완진 박천홍
 이현주 김연수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한준호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시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 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팩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頂上의 기획+편집



서울 · 종로구종로1가45 서울빌딩601호
전화 739-0150(代) 팩스 739-0160

① 어려운 때일수록 그 승부처는 기획·편집에 있습니다. 저희 열린마당에서는 경험과識見을 갖춘 頂上의 편집자·출판미술가·사진작가 등이 온 힘을 모아 '21세기를 준비하는 출판물'을 기획·편집하고 있습니다. 雖艱難하는 동반자이기를 기대합니다. ② 베스트셀러 생활도서·유아도서 및 교구·오디오·비디오 기획·제작의 광범위한 실적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③ 종합마케팅플랜에 근거한 장정·광고·팝플래트 기획·제작하고 있습니다.

高品質의 인쇄+제본



서울 · 종로구종로1가45 서울빌딩601호
전화 739-0150(代) 팩스 739-0160 인쇄·제본공장 465-4707(代)

■ 이때까지는 큰일이나 작은일이나 제판·인쇄·제본 등의 공정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했고 인력부족 등으로 품질이나 납기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이제부터는, 저희 삼덕미디어에 맡겨 주십시오. 책임제작시스템으로 정성스럽게 제작하여 高品質의 출판물을 납기일에 어김없이 납품하겠습니다.